

농어촌공, 수해 피해 농가 복구를 위해 전사적 지원에 나서



<사진설명> 한국농어촌공사가 21일 충북 괴산군 칠성면에서 수해 피해 농가 대민 지원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21일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하여 충청북도 괴산군에 위치한 수해 피해 농가를 방문해 하우스 복구 활동을 전개했다.

공사와 대구광역시, 구.군 자원봉사센터, 충북 관내 지역기관 및 봉사자 등 총 88명은 연이은 폭우로 피해가 극심한 충북지역의 고추 재배 농가를 찾아 피해 농작물 수거 등의 활동을 했다.

앞으로도 공사는 본사를 총괄 컨트롤 타워로 각 본부 및 지사의 피해 현황에 대한 실시간 보고 체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폭우로 피해가 극심한 충남북, 경북, 전북 등 농어촌 지역의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자체 복구인력을 지원하고 상황에 따라 지자체 등 여러 기관과 합동으로 복구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이병호 사장은 “공사가 극한 호우 등 비상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수해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피해 회복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총무인사처	책임자	부 장	송영수 (061-338-6041)
	총무부	담당자	대 리	현화경 (061-338-6048)